

<녹색당의 2024 선거연합에 반대합니다>

※ 240114 제주녹색당 당원토론회 '선거연합정당 당원 총투표, 알고 투표하자' 당원들의 의견 나눔 자리에서 제출한 제주녹색당 박은서 당원의 글입니다.

1. 녹색당에 찬성하기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열성당원입니다. 두 번의 지방선거를 지켜보았고 한 번엔 열렬히 참여했으며 제게는 두 번째인 녹색당 총선에 평당원으로서 참여 중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녹색당이 약소한 시민과 생명들의 목소리가길 바라고, 거대 자본과 군사 권력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내길 바라며, 의회정치의 직접 당사자가 되길 바랍니다. 녹색당이, 당의 목표와 가치체계를 잘 세워 그 기준에 합당한 당원들이 정의롭게 결집하여 선거에 임하고 사회를 공정하게 구성·유지하며 당의 논리에 모순되지 않는 판단을 하는 의원을 배출하고 지원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녹색당에 찬성하고 그렇지 못한 녹색당에 반대합니다. 녹색당이 진정 정의롭도록, 비판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2. 기후정치 세력화의 문제

2024총선에서 녹색당은, 기후정의운동의 동력을 정치적 힘으로 전환, 원내 진출을 달성하여 기후정의운동 및 진보정당 연대를 강화(2023년 3월 10차 전국대의원대회) 하겠다고 했으며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여 기후정치세력화를 추진(2023년 11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후정치란 무엇이며, 기후정치 세력화란 무엇입니까. 녹색당의 기후정의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며 기후위기를 넘어 총체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2024기후정치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떻게 현실정치와 만나는 것입니까.

녹색당은 원내 진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정의 운동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작 기후정의운동 조직들과 세력들은 녹색당과 정치적 연대 관계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총선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 녹색당은, 운동가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각의 운동가들이 녹색당원이라고 해서 그 운동이 녹색당의 것이 된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되풀이되는 그 발화는, 녹색당원인 현장의 활동가들이 끝내 저버리지 않고 있는 녹색당에 대한 신의를 짓밟는 일입니다.

녹색당 집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듯 전세계 탄소배출의 주된 원인은 군사화 및 전쟁입니다. 지금 중앙 녹색당에게 기후위기의 현상이 있습니까. 기후위기 가속화와 전쟁을 몸으로 막고 있는, 소성리 사드 현장, 새만금 갯벌 현장, 제주의 해군기지, 공군기지, 우주산업의 현장 활동가들과 지속적, 정기적으로, 진심으로 연대한 적이 있습니까. 각 지역 녹색당이 외로이 지역 투쟁을 할 때 중앙 녹색당은 그저 수도권에서 일 회에 그치는 각종 기자회견, 집회들에 소모적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진심의 정치는 지역의 현장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것임을 무시한 채 녹색

당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정치의 싹을 남의 투쟁 현장에서 베어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녹색당이 스스로의 현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역 정치의 힘을 키우길 바랍니다.

지금 녹색당에겐 선대위 현장만 있어 보입니다. 지역의 현장과 손잡지 못하고 대신 다른 정당 세력들과 손잡는 일로 국회의원 자리를 얻어낸다 한들 그 정치인이 녹색당 지역 현장의 대변인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일로서 '상설협의기구, 기후시민의회, 정책' 등은 녹색당이 현장에서 싸움의 당사자로서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 진실로 기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장이 있어야 유권자가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선대위는 2024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설혹 남의 힘으로 한두 개 의석을 얻어낸다 해도 이런 구조에서 탄생한 의원들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3. '거대양당제 타파'에 대한 의문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추진하겠다고, 녹색당의 '강력한' 선거연합은 실종 상태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의 주축 세력은 2024 선거연합의 당사자로 나서는 일에 이미 선을 그었고, 진보당은 민주당과 연합에 더 골몰해 있으며 심지어 정의당도 바로 얼마 전까지 민주당과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대양당이 포함된 어떠한 연합에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언(녹색당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 2020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 의존하지 않(2024총선 선거연합정당 관련 안내서)겠다고 한 녹색당은 여전히 진보당과의 선거연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선대위는, 앞뒤 사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지금 녹색당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해 못하는 척을 하고 이 선거연합을 무조건 강행하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연합을 희망하는 정당들과 어떻게 함께 민주당을 타파합니까?! 녹색당이 타파해야 할 대상이 단지 민주당과 국힘입니까. 녹색당 2024총선강령에 적시되었듯 '민중과 자연을 볼모로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와 결별하려면, 녹색당만의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설혹 국회의원 한 명을 간신히 얻어낸다 한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에서 얻어낸 국회 의석이 정의당보다 먼저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이 녹색당만의 고유한 한 표를 행사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의원이 곳곳이 녹색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큼니다. 현실의 정치판에서 녹색당의 선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녹색당이 그의 뒤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선거 기간, 신당에 입당하느라 탈당으로 비어버릴 집행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선대위는, 지금 녹색당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4총선에 대한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어제(1/13) 녹색당은, 정의당하고만 선거연합을 합의하였습니다. 내홍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녹색당과 의석을 나눈다는 이유로 또한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최근 탈당한 정의당원은 망해가는 정의당이 녹색당을 끌고 들어가 녹색당까지 망할까 걱정이란 말까지 하더군요. 온갖 염려에도 불구하고 두 당의 선본은 합의를 강행했고, 이제 두 당의 당원 총투표는 형식적 절차로서만 남아 있습니다. 두 당의 선본은 선거연합 찬성을 전제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식적 문서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등 총선이 가까울수록 정치 상황은 변하고 있으나, 이미 전국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니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연합 중단 발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전국의 당원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했던 1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이유로, 그러니 논의가 충분했던 이유로 선거연합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2024총선이, 각 지역당 운영위원들에게는 오래 고민한 문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은 운영위로서 책임감과 고민 이전에 전 당원과 문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더 충실했어야 합니다. 각 지역당에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결정된 사항들이 전국위에서 의결되고 난 후 이제야 사후 토론회가 열리는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후 토론회마저도 계획된 지역당은, 지금 알기로는 제주녹색당이 유일합니다.

지금껏 해온 방식대로 계속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진보는 실종합니다.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녹색당의 총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현장과 집행부가 더 결속해야 하고 현장에서 당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녹색당이 내부의 힘을 더 돌아보길 희망합니다.